

전남도, 올 농촌관광객 110만명 유치 나섰다

지역자원 활용 특색 프로그램 개발 등 14개 사업 추진 체험 휴양마을 135곳 활성화 ... 농외소득 100억 목표

정도 1000년을 맞은 전남도가 올 한 해 동안 농촌 관광객 110만명 유치를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올해 농촌 관광객 110만명 유치를 통해 농외소득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계절 및 테마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편의시설 개보수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휴양과 체험, 자연 속 치유를 원하는 도시민들이 전남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농촌의 아름다움과 여유, 고향의 정서를 느끼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올해 4억6000만원을 지원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노후 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 지원을 원하는 마을은 오는 19일 까지 체험휴양마을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우 접육 요리개발, 장류 음식개발, 주민 감사 양성 등 프로그램 개발 3곳 ▲소비자 초청 체험, 사계절 드론 촬영 동영상 제작, 관외 축제 참가 고들빼기 홍보 등 홍보 지원 3곳 ▲화장실신축, 시설 방문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개보수 확충 10곳

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3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8만명이 전남지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다녀갔으며, 이로 인해 100억원의 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3)나 (사)전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070-7722-2475)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22년까지 33개 사업에 800억 투입 지능형 CCTV·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전남도 5차 정보화 계획 발표 도민이 행복한 지능사회 달성

전남도가 14일 제5차 전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화 경향에 맞춰 '도민이 행복한 지능사회 전남' 비전 달성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보화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다.

정부 국정과제,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등과 연계해 행정·안전, 생활·복지, 농업·해양 등 7개 분야 33개 정보화 사업에 총 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구축 등이고, 생활·복지 분야는 ICT 활용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 농업·해양 분야는 기후(기상)기반의 어장 관측정보 관리시스템과 맞춤형 스마트 수산양식 플랫폼 기반 구축 등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는 도민 누구나 고품질의 보편적인 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광지·대중교통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휴대전화 난징지역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용역을 위탁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대내외 전문가 의견수렴과 전남도 정보화위원회의 자문 및 검증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전남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서와 시군이 협업,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사람 반 눈 반 주말을 맞아 14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2018 화천산천어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 오늘 광주 방문

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15일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는 14일 "FINA 코넬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과 외빈푸를 시설위원장, 피터할 마케팅TV 부장 등이 3박 4일 일정으로 18일까지 광주에 머문다"고 밝

혔다.

또 오는 2월 1일 중국 충칭시에서 열리는 FINA 다이빙 콘퍼런스에서 광주대회 준비상황과 경기 프로그램 등을 발표하는 문제도 사전에 조율한다.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로선수가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대회로 광주에서 열린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과장급 인사 ... 인구정책기획단 신설

전남도는 15일자로 4급 과장급 승진·승진자는 총 18명이며, 11명은 공모연수에 들어간다. <명단 22면>

이번 인사의 특징은 전남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구정책기획단 신설이다. 단장은 이상심 해양개발팀장이 승진해 맡는다.

또 행정안전부 출신 김장오 서기관을 감사관실 정령지원관으로 보임해 정령도 향상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

새로 조직이 만들어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에는 하훈 연구부장이 옮겨 됐다.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직 안정과 함께 민선 7기 출범에 대비해 직위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급 이하 후속 인사는 별도 예고를 거쳐 오는 22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 앞두고 유통업체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정부, 오늘부터 한달간

33㎡ 이상 소매사업장 대상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크게 판매가격 표시와 단위가격(10g당, 10ml당, 개 등) 표시로 나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울렛, 편의점,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모두 가격표시제를 지켜야 한다.

가격을 하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어겨서도 안된다. 가전제품과 의류 등 47개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제조업자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관계부처(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설 제수용품, 생필품, 가공식품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태 조사에서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완구용품·악기소매점·운동용품점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당시 81곳 중 22곳(27.2%)만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엔 지도와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벌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의혹 수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4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관리당원 3명은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신규당원에게 문자메시지가 간 경우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성 유무를 확인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대상 혐의는 크게 4~5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본인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 2~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동의

없는 발송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있다.

정당법도 문제다. 정당법 제24조에서 정당은 당원 명부 비치 의무가 있으며, 이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의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발송한 웹사이트와 문자메시지 등이 몇 명에게 발송됐는지, 그 중 민주당원이 몇 명인지, 발송과 제작비용의 규모와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광주시장 당내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지난 2월과 지난해 말에 신규당원 등에게 신변문자메시지를 전달, 당원명부 불법 취득 의혹을 사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 063-835-4771